

志剛, 『初使泰西記』

민정기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중국언어전공 교수

1. 저자

즈강(志剛, 1817~?)에 관한 기록은 사전(史傳)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그가 중국의 첫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순방한 경험을 적은 『初使泰西記(초사태서기)』 첫머리의 자신 관련 언급과, 동문관(同文館) 영문반 학생으로 사절단을 수행한 장더이(張德彝)가 쓴 『再述奇(재술기)』의 관련 언급 등을 통해 대략의 행적을 알 수 있다(장더이의 책은 『歐美環游記(구미환유기)』라는 제목으로 호남인민출판사(湖南人民出版社)와 악록서사(岳麓書社)에서 간행한 '주향세계총서(走向世界叢書)'에 포함되어 있다).

즈강은 만주 양남기(鑲藍旗) 출신의 거인(舉人)이었다. 구이저우 스첸부(貴州 石阡府)의 지부(知府)를 지냈으며, 47세가 되던 1864년(同治 3)에 예부 원외랑후선지부(禮部員外郎候選知府) 신분으로 총리각국사무이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 파견되었다. 1868년 2월부터 2품 위계의 관리중외교섭사무대신(辦理

中外交渉事務大臣)으로 앤선 버링게임(Anson Burlingame, 중국명 蒲安臣, 1820 ~ 1870)이 이끄는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영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프러시아·러시아·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을 방문한 뒤 1870년 10월에 귀국했다.

사절단 일원으로 출국할 당시 즈강은 총리아문에서 장주(章奏) 및 각급 공문의 초안을 총괄 감독하는 총판장경(總辦章京)의 직위를 갖고 있었고 천진해관 도원(天津海關 道員) 승진 후보 명단에 올라 있던 것으로 보아 실무에 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당시 총리아문을 이끌던 공친왕 이신(恭親王 奕訢)의 성향을 감안하면 즈강을 양무파 관원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양무에 적합한 인물 혹은 다수 만주 귀족과 한인 사대부처럼 극도의 대외국인 혐오증을 보이지는 않았던 인물로 짐작할 수 있겠다. 그가 쓴 『初使泰西記』의 내용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파견된 그가 실제로 상당 수준의 양무 관련 안목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1870년 2월, 사절단을 이끌던 버링게임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즈강이 주요 교섭 업무를 책임지게 되는데, 특히 러시아와의 일련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그의 대응은 그가 손색없는 외교관이었음을 보여 준다.

2. 구성과 내용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1858년 영국·미국·러시아·프랑스 등과 체결한 텐진조약의 개정기한이 임박한 1867년 말, 총리아문의 책임자 공친왕 이신 등은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조약의 개정에 수세적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주하였다. 황제의 윤허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를 순방할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사절단 대표는 1861년부터 6년 동안 초대 주청미국대사를 지낸 앤선 버링게임에게 맡겨졌다. 버링게임은 대청 외교에서 온건한 민족자결의 입장

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총리아문의 신임을 얻어 당시 대외 교섭 경험이 많지 않던 청조의 첫 대외 사절단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버링게임이 이끄는 사절단은 만주 팔기 출신의 총리아문 장경 즈강, 역시 총리아문 장경으로 있던 쑤자구(孫家穀), 동문관 학생으로 통역 임무를 맡은 장더이, 버링게임의 영국인·프랑스인 비서 각 1인 등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사절단은 청국을 대표하는 국기로 황룡기를 처음 채택해 사용했다. 버링게임은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 서방 각국과의 교섭에서 중국의 위신과 이익이 관철되도록 노력했고 상당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즈강이 1868년 2월(동치 7년 음력 1월)에 출국해서 1870년 10월에 귀국하기까지 일정과 견문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1877년(광서 3)에 베이징에서 나온 이 책의 최초 각본(刻本)은 저자의 수고(手稿)를 기초로 피열주인(避熱主人)과 아들 이허우(宜堉, 호실에는 피열주인이 바로 이허우라고도 한다)가 4권 4책으로 편찬해 피열와(避熱窩)에서 낸 것으로, 편자 서문이 붙어 있다.

본문은 사절단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유지를 받은 날부터 서술되고 있다. 동치제와 서태후를 알현하고 외국으로 나갈 배를 타기 위해 베이징을 출발해 상하이에 이르는 여정도 제법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처 지나가는 지역의 이런 저런 현안들과 바야흐로 강남 지역에서 흥기하기 시작한 서양식 제조업에 관해 챙겨 기록하는 데에서 민완 관료로서 저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첫 번째 권에는 일본을 거쳐 도착한 미국에서의 일정과 견문이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 권의 앞부분에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뉴욕항을 출발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항해에 이어 영국 프랑스에서의 일정과 견문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권에는 동치 8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프랑스·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프러시아·러시아·벨기에에서의 일정과 견문이 기록되어 있다. 네 번째 권에는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에서의 일정과 견문이 기록되어 있다. 유럽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한 때에 이루어졌

는데, 저자는 마르세유항을 출발하기 전에 전해 들은 양국 간의 전투 소식을 적고 있다. 이 책은 지중해, 수에즈운하, 아라비아해, 인도양, 동남아 해역을 경유해 상하이로 입국하여 베이징으로 귀환하기까지의 일정에 대한 서술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책은 1877년 각본이 나온 이래, 1885년(광서 11) 상하이에서 ‘小方壺齋叢鈔(소방호재총초)’(1권)라는 제목으로 영인본이 발간되었고, 1888년에는 ‘且園主人(즉 즈강)撰’이라 하여 ‘初使泰西紀要(초사태서기요)’라는 제목의 각본으로 다시 발간되기도 했다. 타이완 문해출판사(文海出版社)에서 1877년 각본을 영인해 ‘근대중국사료총간’ 속편(1971)에 포함시켰는데, 이 영인본을 보면 판심에는 “避熱窩”가 찍혀 있고 표지에는 “京都琉璃廠路南林華齋書房發台”라고 되어 있다. 호남인민출판사에서 출간한 종숙하 주편(鍾叔河 主編)의 ‘주향세계총서’(1981)에 현대 구두점을 찍은 판본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3. 의의

이 책은 청나라 최초의 외교사절단의 주요 일원이었던 인물에 의해 쓰인 해외견문록이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상 당시 양무파 인물들의 세계관과 이들이 새롭게 접한 사물과 관념들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충실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편전쟁 이후, 근대 중국의 최초 해외견문록으로는 통상 샤먼(廈門) 출신으로 서양 상인들을 위해 통역을 하던 린첸(林鍼)이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여행한 기록인 『西海紀游草(서해기유초)』(1849년 집필)가 꼽힌다. 그 다음에 나온 것으로는 중국인 관원으로서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Robert Hart)의 건의에 따라 동문관 학생들을 이끌고 1866년 처음 유럽 시찰을 위해 파견되었던 빈춘(斌椿)이 건문을 적어 출판한 『乘槎筆記(승사필기)』가 있다. 이들은 각각 민간인과 관원

에 의한 근대 중국 최초의 서양견문록이라는 데 의의가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새로운 감수성이나 비범한 안목을 보여 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루한 해석 혹은 완강한 저항의 기록이거나 전통 문인의 시적 감흥의 기록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양무관료였던 즈강이 쓴 이 책은, 그 자신이 쓰고 있는 용어를 빌리자면 서양인의 ‘부강지술(富強之術)’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목표로 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책과는 구별된다. 이 책의 이러한 성격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럽을 체험한 왕타오(王韜)의 견문록으로 그의 명망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慢游隨錄(만유수록)』의 서술과도 차이가 있다. 왕타오가 주로 문화와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즈강은 보다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데 주목한다. 당대 유럽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였던 제임스 레거(James Legge)의 초청을 받은 왕타오의 체험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프랑스에 한정되어 있었고 주로 ‘인문학적’ 안목을 보인다면,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를 두루 순방한 즈강은 당대 유럽의 지배층과 직접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열강의 세력 구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감을 갖고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분명한 임무를 갖고 파견된 외교사절의 기록답게 공식 일지에 비견할 만한 태도로 이동 거리와 수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여정 자체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주 임무인 외교적 현안과 교섭내용의 기술, 세계정세의 소개와 분석, 서양의 역사와 정치, 사회제도 소개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단연 도드라지는 내용을 꼽는다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제조업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다. 이 책 분량의 약 4분의 1이 서양의 과학기술, 기기제작, 여러 가지 물건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서술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은 전후의 어느 견문록에 비해 특이한 점으로 주목을 요한다.

서양의 기술과 기기에 대한 관심과 안목은 즈강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타게 된 대형 증기선의 제원과 선박의 운행 원리를 하나하나 챙겨 기록하는 데에서 도드라진다. 이로부터 시작해 저자는 여정 내내 상당한 끈기를 가지고 갖가지 기계의 작동원리와 갖가지 물건의 제조공정

을 기술하고 있다. 서양의 부강기술에 대한 관심에 다름 아니다. 서양이 지금과 같이 부강하게 된 주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사회제도의 내력에서 찾기보다는 물질을 운용하는 기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양무파의 특징적인 면이자 그들이 갖고 있던 인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더욱 주목을 요하는 점은 즈강이 서구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즈강은 당시 양무관원들이 이미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을 ‘부강’, ‘자주’, ‘지구’, ‘외교’, ‘화학’, ‘형질(形質)’, ‘기기(氣機)’, ‘기관(機關)’ 등 새로운 술어를 다량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롭게 접하고 있던 서구 근대문명의 산물을 지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술어를 쓰면서도 보이는 것 뒤에 숨은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대단히 ‘중국적’이다. 말하자면 술어의 수준에서는 ‘번역’이 이루어져 있지만 개념 수준에서는 아닌 셈이다. 일례로, 즈강은 요코하마에서 승선한 미국행 증기선을 설명하면서 증기기관이 작동하는 궁극적 원리를 살아 있는 인체에서 심장의 화기가 하강하고 신장의 수기가 상승해 기운이 생겨나 사지로 퍼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눈으로 관찰되는 작동의 양상을 설명하고 나서 그 배후의 원리를 그러한 기기를 가능케 한 서구의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세계관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서구 물질문명의 궁극적 의의나 그것을 가능케 한 동력에 관한 평가나 해석은 전적으로 중국적 세계관하에서 이루어진다. 일례로, 미국 보스턴에서 2천여 명의 여성 직공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방적공장을 방문한 즈강은 기계화에 따라 한 명의 노동자가 과거 20명의 몫을 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중국에 팔린다면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판단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지한 즈강이 미국의 대량생산 체제에 대해 갖는 태도는 결국 흠모나 질시 혹은 위기감이 아니고 유가의 ‘중의경리(重義輕利)’ 원칙에 따른 비판적 거리두기이다. 때로는 도가사상에 입각해 물질의 향유에 얽매인 근대 유럽문명을 질타하기도 한다. 그는 서양인들의 과학기술에 놀라면서도 한편 “그와

같은 사고력과 재주를 가지고 그저 형이하의 그릇만을 추구하다니, 애석하다(乃以此心思才力, 而只求形下之器也, 惜哉!)”라고 탄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의 제도와 풍습 등에 대한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책은 장즈통(張之洞)에 의해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고 명명된 세계 인식과 실천의 방법의 실제 사례라 하겠다. 이를 통해 양무파 인물들이 세계를 사유하던 방식 및 새로운 문물과 개념을 전유하던 방식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텍스트다.